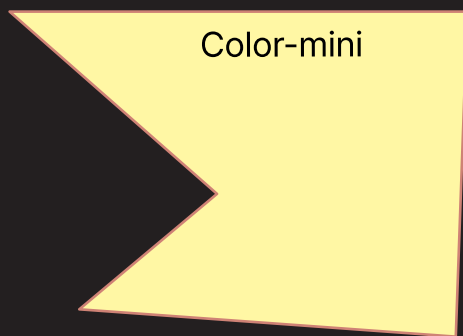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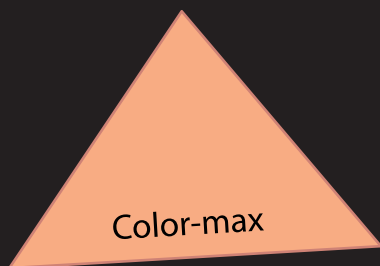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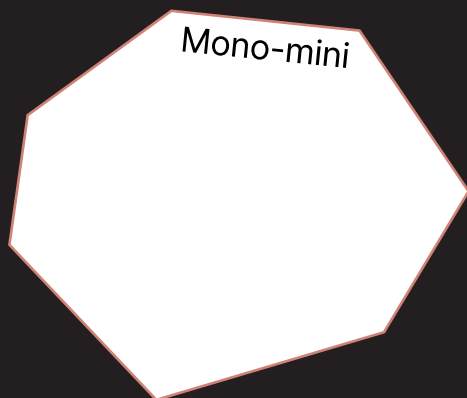


유니콘아트!



아티스트

Oh! Who is your Young artist?

수문장 아트페어 <수문장 0! 아티스트>

‘수문장’은 수원형 문화직거래 장터의 명칭으로, 지역의 예술가와 문화생산자를 지키고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장을 뜻합니다.

2024 수문장 아트페어의 1차 전시 <수문장 0! 아티스트>는 ‘Oh! Who is your Young artist?’ 라는 주제로 <화랑미술제 in 수원 >에서 진행됩니다. 타이틀의 0!은 감탄사 ‘Oh’와 ‘젊다’라는 ‘Young’의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시각적 취향을 기반으로 한 4가지의 공간 (모노-미니, 모노-맥스, 컬러-미니, 컬러-맥스)으로 구성됩니다.

20명의 젊은 작가들의 흥미로운 시선을 감상하고, 취향에 맞는 작품을 선택해 보세요.

- ◻ **모노-미니(Mono-mini):** 절제된 색과 여백의미를 보여주는 섹션
(기민정, 김영환, 김호연, 이미연, 이윤영)
- ◻ **모노-맥스(Mono-max):** 단정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섹션
(곽수영, 권양현, 장은우, 채경완, 한혜령)
- ◻ **컬러-미니(Color-mini):** 멋스러운 중간톤의 색감이 두드러지는 섹션
(구자문, 김유신, 이경현, 이유지, 이태강)
- ◻ **컬러-맥스 (Color-max):** 강렬한 색채와 표현력을 느낄 수 있는 섹션
(김루하, 박종희, 박진아, 이수연, 지니 양은진)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발행일 2024년 6월
주관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디렉터 오택관
총괄 매니저 김정범
큐레이터 및 도슨트 최경아
디자이너 윤희선

www.swculture.or.kr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은 수원문화재단과 작가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b.1986) 기민정
Key Minjung

plz.any.question@gmail.com
@minjungkey

기민정은 동양 회화의 시각 언어를 기반으로, 유동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한다. 획, 칠, 여백은 그가 주요하게 실험하는 시각 언어로, 이들 간의 역동적 상호관계로 인해 그림 안에서 관람자의 시선이 소실점 없이 끝없이 유동하게 된다. 유동하는 시선 속에서 드러나는 형태와 비형태는 상호작용하며 의식의 흐름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자연의 형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밤의 조각1
2023
순지에 채색
70×58(cm)



밤의 조각2
2023
순지에 채색
70×58(cm)

주요 개인전으로는 《Salty edge》(갤러리 까비넷, 2024), 《불의 습기》(송은아트스페이스, 2021), 《종이를 세우고 돌을 감으면 가루가 흐르고 천이》(OCI미술관, 2019), 《돌아와보니 이상한 곳이었다》(송은아트큐브, 2018), 《그 시절은 지나가고 거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갤러리 그리다, 2017) 등이 있다.

#유동 #상호작용 #여백

김영환은 문명(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또한 자연 사이클의 일부라는 본인만의 개념을 갖고 작업한다. 도시가 자연이자 숲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검은 숲”이라 일컫는 작품 시리즈를 통해, 나무가 주는 원시적이고 장중한 감정을 최대한 살리면서, 나무에 투입되는 작가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 또한 전달되기를 바란다. 인공물과 자연물의 상징성을 띠는 숲의 중간적 형태, 기성품과 예술품 사이에 위치한 형태는 그의 확장된 자연주의적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검은숲
2021
나무
70×25×80(h)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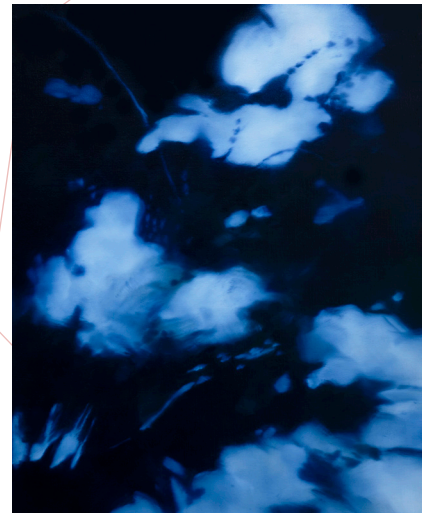


검은숲
2023
나무에떡
70×25×120(h) (cm)

주요 개인전으로는 《검은 숲》(서진아트스페이스, 2021), 《숲_김영환 展》(미사장 갤러리, 2021)가 있으며,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_IIIAF2023》(지리산현대미술관, 2023), 《Kuhn Cycle》(필갤러리, 2023)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숲 #도시 #자연

김호연은 감각한 무언가가 이미지로 고정되기 이전의 틈에 주목한다. 이 틈은 대상이 카메라 셔터를 통과하는 ‘찰’과 ‘착’의 사이 시간과 사람의 눈을 통과해 인식되는 순간에 발생한다. 그는 시선을 잡아끌었던 대상들을 눈으로 보고 감각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 인식되는지와 그러한 형태로 결론지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이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고정된 사진과 주관적으로 옮겨낸 그림의 사이 지점을 바라본다. 플래시를 터트렸을 때 가장 도드라진 부분이 강한 빛을 받아 형상이 날아가는 것처럼, 작가와 맞닿은 부분을 하얗게 비우고 그 속에서 아직 고정되지 않고 부유하는 표상과 감각을 시각화한다. 표면으로 옮겨진 '틈'이라는 표상은 누군가의 바라봄에 의해 또다시 의미가 고정되기 이전의 순간을 만들어내며 각자만의 이야기로 존재하게 된다.



2022
캔버스에 유채
65.1×53.0(cm)



Blow
2022
캔버스에 유채
65.1×5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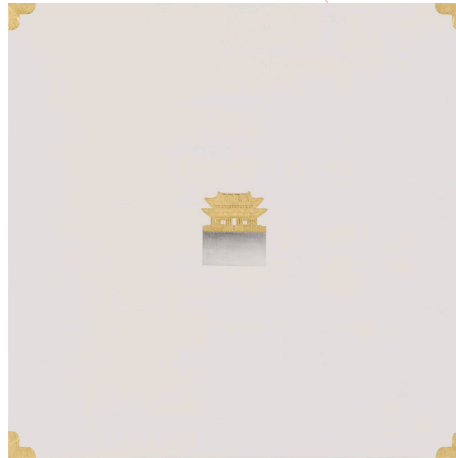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는 《Flowing Mind》(갤러리 밀스튜디오, 2022)가 있으며, 《표준 자오선(Standard meridian)을 지나는 순간》(동작아트갤러리, 2024), 《차원의 이동 Dimensional Shift》(안상철 미술관, 2023), 《공간여행》(갤러리 코사, 2023)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순간 #틈 감각

이미연은 메멘토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박이라는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건축물의 이미지를 재구성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 건축물은 궁궐인데, 이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개인의 자아와 역사, 기억이 층층이 쌓여 형성된 정신적 공간의 역할을 한다. 금박에 압인하듯 선을 새겨 이미지를 그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그는 급변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아를 각인하는 듯한 행위를 통해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변형되고, 때로는 희미해지거나 지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즉, 시간, 기억, 그리고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MEMENTO
2024
한지에 분채. 순금박
100×1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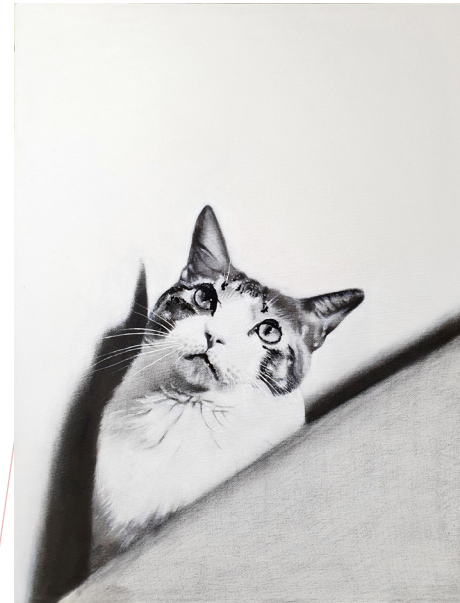


MEMENTO
2024
한지에 분채. 순금박
100×100(cm)

주요 개인전으로는 《MEMENTO》(리버스갤러리, 2024), 《MEMENTO》(핑크갤러리, 2023), 《미미의집에 오신걸 환영합니다》(MANIF 예술의전당, 2016), 《미미의집에 오신걸 환영합니다》(공평아트센터, 2013) 등이 있으며, 《드로잉 페어링》(소마미술관, 2024), 《Gold Experience3》(교토 HRD, 2024), 《Art Festa in London》(런던 Stokeypopup Gallery, 2024)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메멘토 #금박 #기억

이윤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양이를 소재로 작업한다. 속을 알 수 없고 오묘한 매력에 있는 고양이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통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한다.



meow1
2021
혼합재료
53.0×41.0(cm)



The milky way
2024
혼합재료
65.1×53.0(cm)

주요 전시로는 《스카우트전》(갤러리 이마주, 2023), 《제3회 아트오일장》(갤러리 아미디, 2022), 《서대문구청 기획전》(카페 오브로더, 2022), 《예술시장다다》(은평문화재단, 2022), 《모던아트 인 수원》(패터슨 커피, 2021), 《SOMETHING》(래미안 갤러리, 2020) 등이 있다.

#고양이 #반려동물 #일상

곽수영은 기억에서 길어 올린 이미지를 그린다. 시각은 망막에 맺힌 상을 뇌에서 판단해 지각한다. 뇌로 '본다'고 가정하면, 꿈에서 보는 환상과 눈으로 바라보는 실상의 구분은 모호해진다. 한쪽 눈으론 객관적인 시각 정보로, 다른 쪽 눈으론 주관적인 기억의 이미지로 바라본다. 곽수영의 그림은 실상과 환상이 섞인 (초)현실적 화면이다. 그는 이 공간을 '판토피아(Pantopia)'라고 부른다. '전체'를 뜻하는 접두어 'pan-'과 '영토'를 뜻하는 접미어 '-topia'의 합성어인 판토피아는 그리는 이와 보는 이의 지각 방식이 전제가 된 말로, 환상과 실상, 현재 그가 속한 공간과 지금껏 보아온 이미지들이 영향을 주고받아 형성된 모든 공간, 열린 공간에의 은유이다.



▲ 3



▲ 4

모두의 동산 3,4
2023
캔버스에 아크릴
72.7×72.7(cm)



▲ 3



▲ 4

모두의 우주 3,4
2023
캔버스에 아크릴
72.7×72.7(cm)

주요 개인전으로는 《CLINAMEN》(갤러리 광명, 2024), 《Stardust Memories》(이든 갤러리, 2023),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TYA 갤러리 서촌, 2023), 《방황하는 바위들》(오분의일, 2022) 등이 있으며, 《High poly》(아출레주 갤러리, 2023), 《시간의 확장》(스파치오 위르 갤러리, 2023), 《마스커레이드展》(예술의전당 한가람디지털미술관, 2021), 《MOMENTUM》(인사아트센터, 2021), 《Stubborn Visionaries》(스펙트럼 갤러리, 2020)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기억 #실상 #환상

권양현은 생명력, 자유, 꿈, 희망, 행복을 주제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그만의 세계관을 표현한다. 상처를 끌어안은 후 내보이는 용기로 성장하듯이, 희망과 행복을 그리는 작업을 통해 저마다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



Dear_Love!
2023
디지털 드로잉
50.8×50.8(cm)



My lake and Almond
2023
디지털 드로잉
50.8×50.8(cm)

주요 개인전으로는 《少女》(히든스페이스, 2014), 《Spectrum》(스톤앤위터, 2012)이 있으며, 《매치드 아우라 : 오리지널 익스텐드》(롯데몰, 2023), 《우리가 만든 로컬展》(수원전통문화관, 2022), 《2022 비상》(세운홀, 2022), 《행운의 편지》(아트랩와산 408, 2022)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희망 #행복 #꿈

장은우는 한지를 오리고 붙이는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잊혀져 가는 도시의 기억을 회복시킨다. 우리가 살고있는 삶의 터전인 '도시'를 일상적 삶의 공간이 아닌 작가적 시선을 담아 중첩되고 켜켜이 쌓인 시간을 통해 표현한다. 도시의 곳곳을 산책하면서 만나게 된 개인적인 추억의 공간을 의미 있는 장소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도시에 새로운 시간의 숨결을 불어 넣고자 한다. 즉, 현재와 과거의 시간 사이에 있는 도시라는 개인적인 기억의 공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소경산책 消景散策
2022
캔버스에 한지풀라주, 먹, 채색, 아크릴,
53×45 (cm)



Urban Wanderers
2023
캔버스에 한지풀라주, 먹, 채색, 아크릴,
53×4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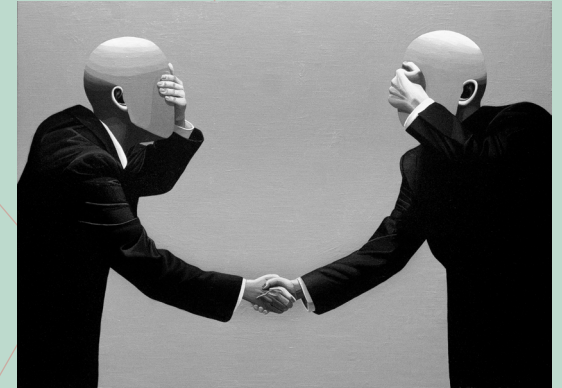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는 《Our Alleyway》(지소갤러리, 2024), 《도시: 시간의 숨결》(이랜드사옥, 2023), 《옥류유랑 玉流流浪》(상촌재, 2023), 《도시를 걷는 시간》(오재미동갤러리, 2023), 《소경산책》(고희동미술관, 2022)이 있으며, 《BAMA》(BEXCO, 2023), 《조형아트서울》(COEX, 2023), 《자유로이 노닐다》(김홍도 미술관, 2023)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도시 #기억 #중첩

채정완은 검은 양복 차림의 민머리 캐릭터를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시각화한다. 가장 보편적인 블랙, 화이트, 회색으로 주로 표현하며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작품으로 돌이켜보고, 그 해결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보고 싶지 않지만 보이는 것
2022
캔버스에 아크릴
72.7×53.0 (cm)



악수
2024
캔버스에 아크릴
53.0×72.7 (cm)

주요 개인전으로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10 Gallery, 2024), 《다름》(갤러리이마주, 2023), 《솔직히 말하면》(아트필드 갤러리, 2023) 등이 있으며, 《Fresh》(구미갤러리, 2024), 《환대의 식탁-마주하다》(갤러리 아트한, 2023), 《이상한 나라의 괴짜들》(K 현대미술관, 2023), 《Hi-story. gif》(자하 미술관, 2022)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사회문제 #불만 #공론화

한혜령은 인생을 살아가며 형성된 관계, 사람과 사람이 만나 촉발하는 다양한 감정(喜怒哀樂)선을 바라보며 감정의 근원을 찾는 작업을 한다. 감정을 물질적 형상으로 구현하고, 그 형상에 예술적 기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작품은 이루어진다. 한국 사회의 저변에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수직구조의 전통적 규범이 강하며, 이러한 전통적 규범에 따르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겨왔다. 한국 사회에 고착된 이러한 문화는 개인과 개인, 집단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사회구조의 일원으로 순응하기 위해, 입을 닫고 몸을 움츠려야 하는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정된 틀에 가두어 놓고, 감정을 억압하기도 한다. 개인의 다양한 감정이 촉발되어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고, 그 속의 ‘비가시적인 힘’을 바라보고자 한다.



움푹함에 아늑한 자리 134d824
2024
캔버스에 유채
22×22(cm)



움푹함에 아늑한 자리 134d824
2024
캔버스에 유채
22×22(cm)

주요 개인전으로는 《관계에서 감정을 추출하다》(리각미술관, 2024), 《Artist's phantasmagoria》(문화공간 151, 2024), 《Mille-Feuille》(수원문화재단 기억공간 잇-다, 2023)가 있으며, 《감정의 경계》(강동문화재단 갤러리 그림, 2024), 《경계 그 넘어》(수원시립만석전시관, 2023), 《아래로 펼치다》(서리풀청년갤러리, 2022), 《숨 su:m》(김홍도 미술관, 2022)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관계 #감정 #색

구자문은 대다수의 대중이 좋아할 만한, “첫눈에 보았을 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그의 작업 미(美)는 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색을 도자기에서 표현 가능한 다양한 재료를 통해 사물 본질의 아름다운 형태를 만든다.



빛의무게
2019
도자기
ø17×16(h) (cm)



Repetition+Repetition
2020
도자기
ø 13×22(h) (cm)

주요 개인전으로는 《나의 향아리》(포레리움, 2023) 등이 있으며, 《Blooms Square》(코너스퀘어, 2024)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신당창작아카데미드 11기, 13기 작가로 활동했고, 양구백자박물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아름다움 #색 #도자기

김유신은 이질적인 색채의 적용과 조화라는 주제로 작업을 한다. 색채는 감상자와 광원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상호작용을 하며 유동적으로 인지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열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를 바탕으로, 이질적인 색채의 조합을 캔버스 화면에 담아내며, 부조화가 아닌 또 다른 조화임을, 틀림보다 다름을 강조하고 상대성에 대한 인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each life105
2024
캔버스에 아크릴
72.7×60.6(cm)



each life106
2024
캔버스에 아크릴
72.7×90.9(cm)

주요 개인전으로는 《Each color, Each life》(갤러리 H, 2022), 《빨간색은 파란색을 부러워하지 않는다》(사이아트 스페이스, 2022)가 있으며, 《푸른봄날전》(비움갤러리, 2024), 《제 2회 구구이즘전》(구구갤러리, 2024), 《united project art》(유나이티드 갤러리, 2024)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색채 #관계 #조화

이경현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풍경과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의 삶을 투영한다. 이를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시점으로 그리는데, 획일화된 가치와 끝없는 경쟁 속에서 얽히고설킨 인간 군상을 반복되는 행위, 놀이, 그리고 그들이 지닌 오브제와 배경에 의미를 부여하여 장면과 상황을 묘사한다. 그는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 작은 여유를 통하여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작품을 통해 모색한다.



Banana farm
2024
캔버스에 아크릴
60×72(cm)



Green tea
2022
캔버스에 아크릴
60×72(cm)

주요 개인전으로는 《The story of my life》(갤러리 탐, 2023), 《가을이 온다》(현대백화점 신촌점, 2022), 《되돌아올 풍경》(생활지움갤러리(파트라), 2021) 등이 있으며, 《Two springs》(윤아트 갤러리, 2024), 《어제같은 오늘 오늘같은 내일》(갤러리 다운, 2023), 《소소(紹紹)한 전시》(반디트라스, 2022)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현대인 #일상 #군상

이유지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내면의 생채기와 이별, 신념을 되찾기 위한 허물을 지키는 보호와 염원을 담은 심터를 그린다. 그의 그림에는 가느다란 실 모양의 빛이 있는데, 정신적 버팀목인 누에와 같은 실타래의 보호막은 유년기 상처를 꿰매는 기억의 산물이자 치유의 껍질을 의미한다. 내면의 보호막은 단단해질수록 회복탄력성은 커지고 또 다른 내일을 출발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개인사적 경험과 연결된 그의 작품 속 초현실적 공간은 내면세계의 상실과 회복, 염원을 나타낸다.



봄의 생각의자
2023
캔버스에 유채
80.3×100(cm)



흔들리며 떠내려온 기억들
2023
캔버스에 유채
65×91(cm)

주요 개인전으로는 《심연의 풍경》(사이아트도큐먼트, 2017)이 있으며, 《GS시선 이유지,이정민》(GS시선갤러리, 2023), 《제주 청년의 날 청기일전》(제주특별자치도청, 2022), 《제4회서울로미디어캔버스》(서울로미디어캔버스, 2022), 《모두로부터 여기까지》(아트스페이스넷, 2018), 《가송예술상 제5회 여름생색》(공아트스페이스, 2016)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심연 #보호 #상실

이태강은 진리와 현실에 대한 탐구를 작업으로 드러낸다.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는 뇌에서 전기적 신호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불완전한 인지 방식을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 깨달음까지 의심하고 질문하고자 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막다른 하늘’ 혹은 ‘투영된 하늘’의 중첩을 통하여 이러한 부조리에 대한 물음을 반복하여 던진다.



Epiphany
2023
캔버스에 아크릴
116.8×91(cm)



Projected Heavens
202405, 2024
캔버스에 아크릴
72.7×60.6(cm)

주요 개인전으로는 《Projected heavens》(금오공대갤러리, 2024) 등이 있으며, 《생태적 캔버스》(고색뉴지엄, 2024), 《드로잉퍼어링》(소마미술관, 2024), 《바라고 바라봄》(지누지움 미술관, 2023), 《3650 Storage/Interview》(서울미술관, 2022), 《숨은 세종 찾기》(박연문화관, 2022), 《도시충;동 예술충;동》(수원시립중앙도서관, 2021), 《Be정상》(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 2021)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현실 #영원 #초현실

김루하는 과거의 매개체를 활용하여 회기라는 타임슬립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장치일 뿐이다. ‘그땐 그랬었지’라는 감정을 주는 동시에,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인식시켜 나가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비단 위에 채색으로 작업하며, 작품에 주로 사용하는 소재는 과거의 장난감(로봇, 인형)이고, 머리 부분만 크게 확대해 마치 오류가 생긴 이미지처럼 보이게 작업한다.



우주에서 온 친구들1
2023
비단에 채색
40×40(cm)



Golden hero
2023
비단에 채색
90.9×72.7(cm)

주요 개인전으로는 《현재과거형》(삼덕도서관, 2022)이 있으며, 《Busan X the sky》(부산 LCT 100층, 2024), 《어반브레이크 오픈콜 아티스트》(코엑스, 2023), 《0-1=0》(wwwspace, 2023)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과거 #현재 #회기

박종희는 어릴 적 좋아했던 일본 만화영화 속 캐릭터를 단청이라는 한국 전통 문양 속에 그린다. 성인이 되어서 마징가, 건담 등의 캐릭터를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 속에서 좋아한다는 것은 그에게 쉽게 용납되는 일이 아니었다. 한국의 전통 단청 문양 속에 일본 로봇 캐릭터를 위장하는 작업은 일본에 대한 복잡하고 역설적이며 양가적(ambivalent)인 사실과 정서가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는 동심과 역사적 인식 속에서 흔들리는 외로운 이방인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상한 나라의 메카닉
2023
한지에 수채
45.0×45.0(cm)



이상한 나라의 메카닉
2023
한지에 수채
45.0×45.0(cm)

주요 개인전으로는 《이상한 나라의 메카닉》(라우 갤러리, 2023), 《이상한 나라의 메카닉》(갤러리 럼해, 2022), 《이상한 나라의 메카닉》(갤러리 일호, 2021)이 있으며, 《Zerobase:The Edit》(서울옥션 강남센터, 2022), 《Zerobase Spectrum》(서울옥션 강남센터, 2021), 《Zerobase v6》(서울옥션 강남센터, 2021)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로봇 #캐릭터 #단청

박진아는 레고라는 소재를 사실적으로 그린다. 레고 장난감에 제공되는 설명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공하며, 나이에 맞는 조립 난이도를 설정하여 우리가 가진 가치를 단계별로 묶어두려 한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무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미리 의미를 고정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본래의 가능성은 제한 당하게 된다. 작품 속 흩어진 레고는 불확실함과 무의미가 아닌, 우리 본연의 모습 그 자체를 나타낸다.



수제레고
2024
캔버스에 아크릴
45.5×45.5(cm)



수제레고
2024
캔버스에 아크릴
60.6×60.6(cm)

주요 개인전으로는 《131014》(갤러리 림해, 2023)가 있으며, 《AFTER POP》(갤러리 림해, 2024), 《조형아트서울》(COEX, 2024), 《나를 스쳐 가는 것들에 대하여》(갤러리 아미디 한남, 2023)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레고 #가능성 #회화

이수연은 개인의 부정성과 불안정한 심리 현상들을 기반으로 인체를 왜곡하여 추상적이고 반복적인 이미지를 결합하여 표현한다. 과거의 기억이 가져다준 공포와 불안과 같은 감정들은 작품의 주제가 되었고, 슬픔, 고통과 같은 심리 작용이 예술 활동 가운데 부산물이 되어 작업으로 전이되어 왔다. 화면에 가득 차 있는 인물과 자연의 모호한 비형상적 표현들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상태, 무섭도록 차오르는 갈망을 해소하기 위한 발버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 에너지를 자연 생태적 삶으로 전환해 심신의 치유를 얻고자 하며, 나아가 화합과 승화와 같은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Holh#1
2023
판넬에 메탈릭마카, 콩테
72.7×60.6(cm)



Holh#2
2023
판넬에 메탈릭마카, 콩테
72.7×60.6(cm)

주요 개인전으로는 《밤의 염원으로 가는 길》(갤러리 k소하, 2023), 《Draw Fire》(이상아트센터, 2020), 《밤의 팽창》(문화상회 다담, 2020), 《그녀의 정서적 배경》(대안공간눈 제1전시실, 2018), 《니나나나》(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2017)가 있으며, 《생태적 캔버스》(고색뉴지움, 2024), 《드로잉페어링》(소마미술관, 2024), 《행궁유람 행행행》(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2022), 《적응방산》(팔레트 서울, 2021)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불안 #공포 #치유

지니 양은진은 다양한 색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은유하며 “관계 맺기”와 “소통”을 통한 치유를 담아낸다. ‘미술 치료 작가’, ‘자발적 감정대리인’이라고도 불리며, 각 개인이 느끼는 감정의 색에 집중하여 시각화된 감정들로 자신과 마주할 기회를 마련한다. 예술이 용기와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임을 느끼고, 예술을 통해 공감 능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마음정원
2023
혼합재료
53×72.7(cm)



마음정원
2023
혼합재료
53×72.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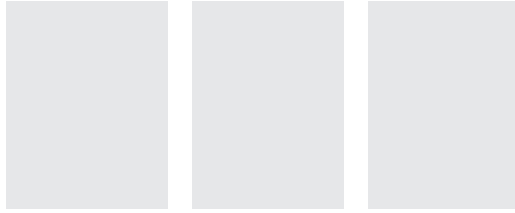
주요 개인전으로는 《JINIDA #HOT PLACE》(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갤러리, 2024), 《JINIDA #HAPPY PLACE》(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고, 2024), 《JINIDA: HAPPY CHOICE》(수원시립만석전시관, 2023), 《The Boutique: Jinie Collection》(비오케이아트센터, 2021), 《Hey, Jinie》(라메르갤러리, 2020) 등이 있으며, 《코리아아트페스티벌 개관기념초대》(온세아트센터, 2019), 《ART VACCINE》(가이아갤러리, 2017), 《국제환경아트페어환경전》(순천문화예술회관, 2010)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색 #관계 #소통

모노-미니(Mono-mini)

Hidden Artworks

기민정
Key Min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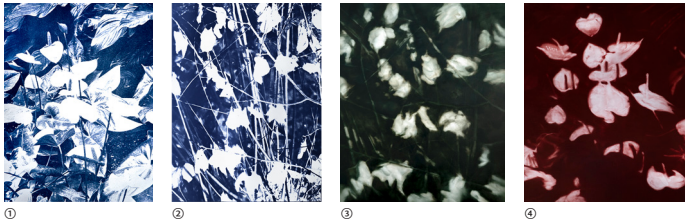
출품예정

김영환
Kim Young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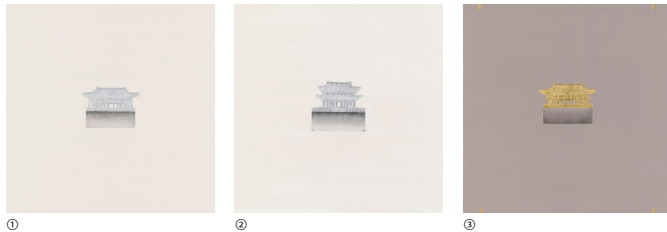
검은숲
2021

김호연
Kim Ho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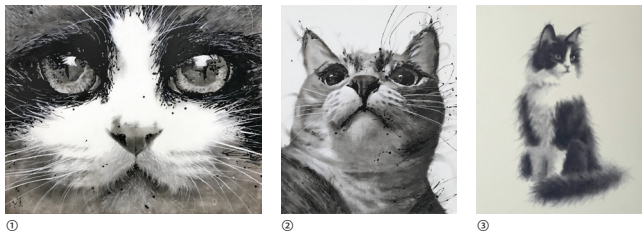
- ① The heart (C)
- ② The leaves of (C)
- ③ The leaves of
- ④ The heart of
2023

이미연
Lee Miyeon



- ①② MEMENTO
2023
- ③ MEMENTO
2024

이윤영
Lee Yoon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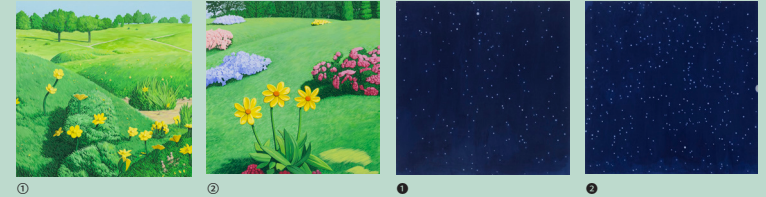


- ① 초롱초롱하냥
2021
- ② meow3
2022
- ③ Noblesse_Vanilla
2024

모노-맥스(Mono-max)

Hidden Artworks

곽수영
Kwak Sooyoung



- ①② 모두의 동산 1, 2
- 모두의 우주 1, 2
2023

권양현
Gwon Yanghyun



- ① 항해(Voyage)
- ② Emptiness
- ③ Let_s_walk_laugh_and_meet!
2023

장은우
Chang Eun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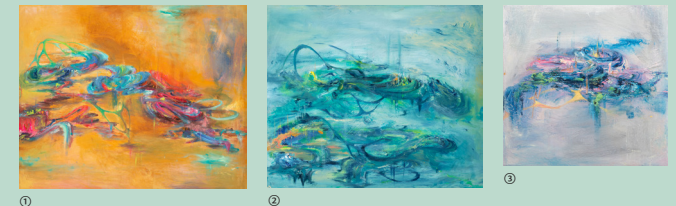
- ① Urban Wanderers
2023
- ②④ Our Alleyway
2024

채정완
Chae Jungwan



- ① 날 두고 가지 마
- ② 나태와 행복
2023
- ③ 하이파이브
2024

한혜령
Han Hyeryoung



- ① 움푹함에 아늑한 자리0134B3CB
- ② 움푹함에 아늑한 자리 134B30A
2023
- ③ 움푹함에 아늑한 자리 134d822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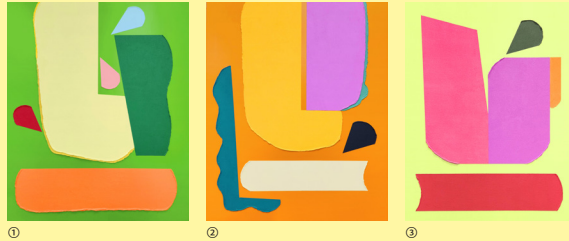
구자문
Koo Jamoon

- ① Repetition+Single
2020
- ②③ Honey jar_vlog
2022



김유신
Kim Youshin

- ① each life100
- ② each life103
- ③ each life104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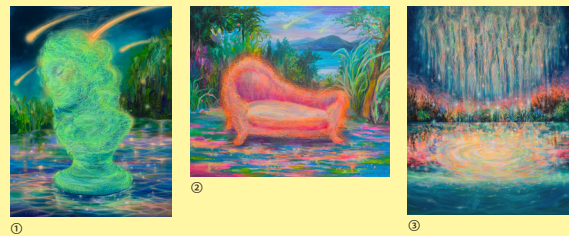
이경현
Lee Kyounghyun

- ① Rose
- ② 도담상봉
2023
- ③ Cherry blosso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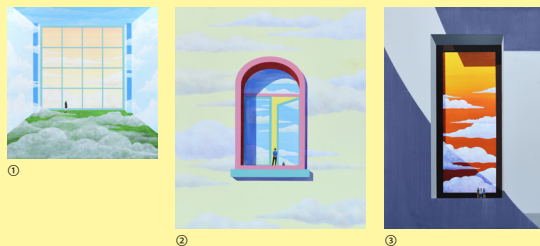
이유지
Lee Yuji

- ① 빛을 잊지 않은 조각
- ② 열렬히 생각하는 의자
2022
- ③ 영원의 쉼터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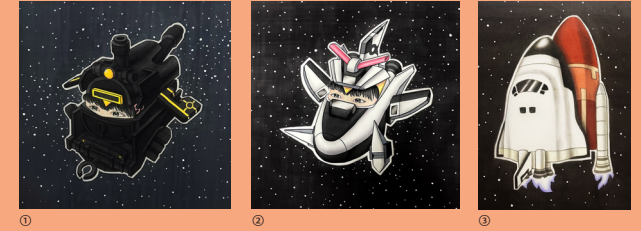
이태강
Lee Taekang

- ① Heaven in the heaven 03
2023
- ② Heaven in the heaven 202401
- ③ Projected Heavens 202407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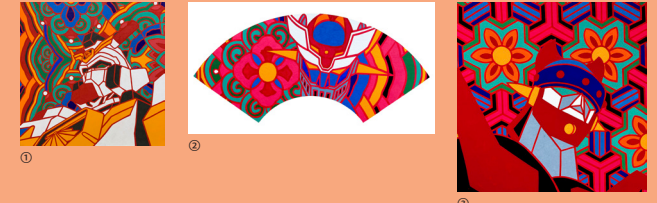
김루하
Kim Ruhua

- ① 우주에서 온 친구들 3
- ② 우주에서 온 친구들 8
2023
- ③ 연결지점
2024



박종희
Park Jonghui

- ① 이상한 나라의 메카닉
2018
- ② 이상한 나라의 메카닉
2021
- ③ 이상한 나라의 메카닉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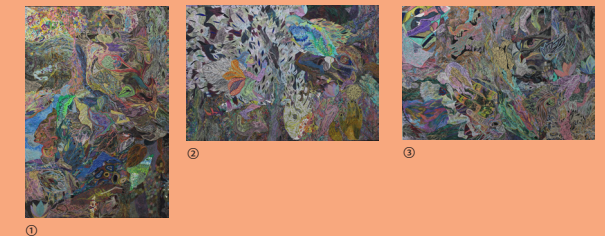
박진아
Park Jina

- ①②③ 131014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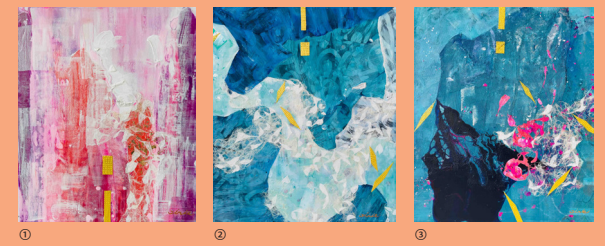
이수연
Lee Suyeun

- ① Holh#3
- ② Holh#4
- ③ Holh#5
2023



지니 양은진
JINIE Yang Eunjin

- ① 지나칠수 없는 오늘
- ② 지나칠수없는그것
- ③ 화신(化身)
2023





모노-미니(Mono-mini):
(기민정, 김영환, 김호연, 이미연, 이운영)



모노-맥스(Mono-max):
(곽수영, 권양현, 장은우, 채정완, 한혜령)



컬러-미니(Color-mini):
(구자문, 김유신, 이경현, 이유지, 이태강)



컬러-맥스(Color-max):
(김루하, 박종희, 박건아, 이수연, 지니 양은진)

1차 전시 -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3F)
2024.6.27~6.30

2차 전시 - 복합문화공간 111CM
2024.9.20~10.13

